목포 삼학도에 '사계 정원' 조성된다

〈四季〉

낭만·꽃섬정원 등 테마별 6곳 조성…사계절 꽃피는 삼학도로
30억원 투입 11만본 심기 나서…해변 맛길 조성 사업도 탄력

목포시가 올해 '낭만항구 목포'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사계절 꽃피는 삼학도' 조성사업이 닻을 올렸다.

5대 프로젝트는 '맛의 도시 목포', '슬로시티 목포', '목포 가을페스티벌',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 '해변 맛길 30리 조성' 사업 등이다.

특히 삼학도 사계(四季) 정원 조성은 김종식 시장이 가장 공을 들이는 해변 맛길 30리(해안을 따라 북항에서 선창, 삼학도, 남항, 갓바위를 거쳐 평화광장에 이르는 길)조성 사업의 5개 구간 중 한 구간이어서,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사업비 30억을 투입해 삼학도를 완전 리모델링하는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삼학도에 사계절 꽃이 피고 특색 있는 테마정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달부터 꽃 식재 작업에 들어갔다.

목포시에 따르면 테마정원은 요트마리나 입구, 삼학교 입구, 바다과학관 앞,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 중앙공원 가로변, 대삼학도 입구 등 총 6개소에 들어선다.

우선 1차로 2억6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4개소가 조성된다. 장소마다 특색을 살려 낭만 정원(요트마리나 입구), 꽃섬정원(삼학교 입구), 삼학 정원(바다과학관 앞), 평화 정원(노벨평화상기념관 앞) 등 명칭까지 부여했다. 나머지 2곳은 조성 면적이 넓어 내년 초 2차분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연간 80만명이 찾는 곳임에도 꽃과 화목류가 없어 삭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포인트가 되는 위치에 계절을 대표하는 다년생 꽃과 잎이 아름다운 초화류로 테마정원을 꾸며 차별화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취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낭만 정원에 27종 1만2570본이 식재되는 것을 비롯해 꽃섬정원에 18종 6490본, 삼학 정원에 25종 1만7675본, 평화정원에 29종 1만4405본 등 모두 10만9526본이 심어져 삼학도를 장식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지난 7월부터 직접 발로 뛰며 서울 마포구청과 강동구청의 녹지와 교통섬, 올림픽공원 사계 정원, 경기도 이천 농장 및 서일농원 등 10여 곳의 벤치마킹을 통해 실시설계와 실행계획을 자력으로 수립해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의미가 남다르다.

삼학도 테마정원은 요트마리나 입구, 삼학교 입구, 바다과학관 앞,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 등 총 6개소에 조성된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앞 삼학정원에 꽃 식재 작업이 한창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김종식 목포시장은 "삼학도를 프랑스 리옹이나 일본 노고노시마처럼 사시사철 꽃이 피고 나무와 숲이 풍부한 섬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사계절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목포를 대표하는 삼학도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좋은 콘텐츠를 담아내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원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4월 튤립을 시작으로 5월에 붓꽃, 서양매발톱, 휴케라, 돌단풍 등이 삼학도를 수놓고 7~8월에는 꽃 백합, 옥잠, 백리향, 니포피아와 리아트리스가 여름을 장식한데 이어 가을인 9~10월에는 아스타, 하늘용담, 무늬억새, 꿩의 깃 햇살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올 경영 '눈에 띄네'

축구센터 약진…21만여명 유치
문화재단 공모 3억여원 따내
김대중기념관 관람객 20% 증가

목포시 산하 7개 출자 출연기관들이 올 한해 눈에 띄는 경영성과를 거둬 기대이상의 성적표를 내놨다.

국제 목포축구센터는 지난 8월 8개국이 참가한 동아시아연맹 U-15세 여자페스티벌 축구대회를 개최해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마케팅과 전지훈련 유치에서도 약진했다. 파키스탄 체육 청소년장관이 유소년축구 우호협력과 전지훈련지 시찰차 센터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축구대표팀, 프로·실업팀 전지훈련과 지도자·심판 교육 연수팀, 체험학습단, MICE 관광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치성과를 냈다. 10월말 현재 1334회에 총 21만3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 9월엔 제4회 세계 농아인 축구선수권 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16일 동안 펼쳐지는 이 대회에 32개국에서 1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목포문화재단은 올 한해 중앙부처 문화·예술 사업 공모에 응모해 총 5개 사업에 3억4100만원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지원사업(1억8600만원)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5000만원) ▲플레잉 패밀리오케스트라(3500만원)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2000만원) ▲목포 꿈의 오케스트라 기획사업(5000만원) 등이다.

또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진행된 '목포 가을 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낭만비어 페스티벌, 왕년에 목포축제,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골목길이 춤춘다 등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위상을 높였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도 전년도에 비해 관람객이 20% 가까이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목포 국제축구센터는 지난 8월 8개국이 참가한 동아시아연맹 U-15세 여자페스티벌 축구대회를 개최해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훈련 모습.

지난해 24만7303명에서 올해는 27만9473명(11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관람객이 늘면서 운영 수입도 지난해 8092만원에서 올해는 1억120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목포복지재단은 일반 및 정기후원금 1억9100만원 등 총 6억72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5개 분야에서 5억4800만원을 집행하는 사업실적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명절 생필품 및 집 고쳐주기 지원(3500만원)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 및 동절기 연료 지원(1500만원)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2100만원) ▲행복마켓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그룹 홈 지원(6700만원) 등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첫 민선 목포시체육회장 선거 2파전 양상

송진호-이광재 맞대결 구도

송진호

이광재

"체육과 정치는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

2만여 체육동호회원들의 수장을 뽑는 목포시체육회장 선거가 막판까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 체육계가 떠들썩하다.

체육인의 탈정치화를 위해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데도 여전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지역에선 첫 선거인만큼 지역 체육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역량 있고 재력도 뒷받침되는 인사(원로)를 추대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지난 2일 체육계 원로 12명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되면서 사실상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9일 목포시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송진호 전 전남육상연맹 회장과 이광재 전 목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송 전 회장은 '육상' 종목에서, 이 전 부회장은 '야구' 종목에서 잔뼈가 굵은 체육인들로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송 전 회장은 전남 육상연맹을 이끌면서 지난 3년 동안 전국체전에서 만년 중하위권이던 성적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일궜다.

또 전남도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220명을 올 3월에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목포 육상대회를 아시아 공인받는 국제 육상투척대회로 승격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먼저 '체육=경제'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킨 체육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데 체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게 회장선거 출마의 일성이다.

이에 맞선 이 전 부회장은 직전까지 목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근무해 체육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체육회의 독립·자율성 확보가 근본 취지지만 사실상 시체육회의 재정과 시설은 백지상태여서 지자체의 협조나 보조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체육회 독립의 첫걸음인 법인화나 수익사업 기틀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그는 '체육도 복지다'는 개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공모사업과 공공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실제로 부회장 재임당시 청년 사회첫걸음 사업 공모, 생체 동호인 리그(볼링과 농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노하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으로 수영하면 광주를 떠올리듯 목포시 경기부인 축구, 하키, 육상 종목을 특화시키는 종목 집중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뜻있는 일부 종목단체 회장들은 정치적 논란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지역 체육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선거는 18일과 19일 후보등록을 거쳐 오는 29일 투표가 실시되며 46개 종목 회장과 대의원 등 176명(2개 단체 불참)이 투표에 참여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7개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용(비상) 전원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작동 시 소화배관 통해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를 용접 또는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변경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신고서에 불법행위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절삭유 교체 X ✓ 미세 칩 제거
✓ 연/절삭유 부패방지 ✓ 슬러지 악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광주공장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 (02) 2029 - 6400 ~ 3